



의정부주보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1793-1840)



서울 중인(中人) 집안에서 태어난 박종원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궁핍한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앵베르 라우렌시오 주교가 입국한 뒤로 회장직을 맡아보며 교회 일에 헌신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 몸을 피한 박종원은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옥에 갇힌 교우들과 연락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피신한 지 약 8개월이 되던 10월 26일에 체포되었다. 그 이튿날엔 아내 고순이(高順伊)도 체포되어 같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포청에서 아내와 함께 혹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순교를 준비하였다. 마침내 1840년 1월 31일, 박종원은 5명의 교우와 함께 당고개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48세였다.

성화_이흥구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부활 제3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6(65), 1-2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3, 13-15, 17-19

화답송 시편 4, 2, 4, 7, 9 (7c)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또는 ◎ 알렐루야.)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제2독서 1요한 2, 1-5, 7

복음 환호송 루카 24, 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루카 24, 35-48

영성체송 루카 24, 46-47 참조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의 무덤 (1906년 촬영)



베타니아 전경 (1890년 촬영)

올리브산 동편에 자리한 베타니아는 예수님 시대에 라자로, 마리아, 마르타 남매가 살던 옛 고을입니다. 베타니아라는 지명의 뜻은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하나는 '가난의 동네'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베타니아에 살았고(마르 14,3) 라자로도 그곳에서 앓다가 죽었다는 점(요한 11장)을 생각하면, 가난한 병자들이 많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베타니아를 '무화과 고을'로도 풀이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곳도 베타니아였습니다(마르 11,12-14).

주로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라자로 남매의 집에서 자주 머무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가 자기 오빠를 말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요한 11,3)라고 일컬은 점에서도 예수님과 이들이 각별한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라자로가 죽었다는 부고에 예수님께서서는 베타니아까지 가서서 그를 살려내시는데요, 다만 곧장 가지지 않고 이틀 뒤에 가십니다(11,6-11). 라자로의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막상 두 자매를 만나자 눈물을 흘리십니다. 곧 라자로를 소생시켜 주실 터였는데, 왜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이는 아마도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타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고스란히 이입되곤 합니다. 오빠의 죽음을 슬퍼

하는 누이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도 전해져 함께 울어 주신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 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라자로는 수의에 싸인 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걸어 나왔습니다.

라자로의 히브리어 이름은 [엘아자르]로 ‘하느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뜻처럼 라자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 생을 선사 받았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기적, 곧 일곱 표징 가운데 마지막이자 절정이 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라자로가 되살아난 일을 ‘부활’이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죽을 때 그는 하느님 안에서 평화로우리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타니아에 자리한 라자로의 무덤 안에 들어가보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편안함과 함께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어둠입니다. 이런 게 바로 죽음의 어둠이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혼자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죽음을 대하는 마음 자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망각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찾아올 손님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라자로가 경험한 죽음과 소생은, 우리 역시 언젠가 죽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평화로우리라는 확신을 얻게 해줍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 (사회적 약자) ④ - 인간관계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번 주는 「모든 형제들」 69-71항에 나오는 ‘끊임없이 다른 형식으로 듣는 이야기’의 요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회칙은 오늘날 “사회·정치적 불활동”의 정세가 생태 위기와 평화 위기처럼 “세계의 많은 부분을 황량한 셋길”로 만들고, “국내·국제적 논쟁들과 기회의 박탈(불평등)”이란 정세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 증가처럼 “수많은 사람을 길 위에 쓰러뜨리고 있다”는 점을 성찰합니다(71항). 우리는 개인이든 사회 전체이든 기후 변화 같은 생태 위기에 직면해서도 탄소가스를 줄이려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며, ‘산발적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평화 위기의 정세에도 무감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현안 해결을 위한 선의(善意)의 대화 노력에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진실의 순간” 무엇보다도 “결정의 절박함”을 알려줍니다.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주기 위해, 또한 그가 일어서도록 허리를 굽혀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물음은 이기적 개인주의나 폐쇄적 국가주의(nationalism)의 삶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보고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 곧 돌보는 사람들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만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강도도 아니고 지나가는 이도 아니라면, 누구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거나 어깨에 상처 입은 사람을 들쳐 맨 사

람”일 것이므로 이 선택의 결정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70항). 혹시 우리는 이런 도전 과제와 진실과 절박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지는 않는지요?

마지막으로, “길가에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포용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은 어느 경제·정치·사회·종교적 프로그램이든 그 자체를 심판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한 방관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69항). 경제(經濟)에서 ‘제’는 ‘건너다, 돕다,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의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말합니다. 종교(宗教)의 ‘종’은 ‘마루, 일의 근원, 근본, 으뜸,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경제를 사람보다 돈이나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쯤으로, 정치를 민생보다 권력의 획득과 유지쯤으로, 사회를 공동생활의 토대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전장(戰場)쯤으로, 종교를 하나님과 사람을 찾기보다 형식적 제사의 이행쯤으로 이해하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그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도착(倒錯)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사랑에 있어 인내하라고,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존엄을 회복시켜 주라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사회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욘 38,4)

경추골절로 수년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 중인 30대 남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환자는 몇 년 전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목 아래로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말이 좋아서 재활치료지 집에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어 치료라는 이름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나거나 자신이 죽기라도 해야 이 생활이 끝날 거라며 그저 이 병원에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또 다음에 갈 병원을 빨리 구할 수 있게나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나는 환자의 담담한 태도에 그만 한숨을 ‘푹’ 내쉬었다. 환자가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청했다면 차라리 마음 편했을 정도로 내게는 환자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환자가 나를 위로하였다.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만 뜨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께 소리치는 걸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나?’ 환자는 감정이 올라오는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요. 하느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환자의 이야기가 기억에서 희미해진 어느 날, 나는 임상사목교육(CPE)을 받고 있었다. “주임이 부주임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룹원들에게 인생 여정 나눔을 핑계로 이전 본당 주임신부가 나를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가를 폭로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슈퍼바이저가 질문했다. “그러면 안 되

나요?” 나는 슈퍼바이저가 이야기를 잘못 들은 줄 알고 한 번 더 내가 당했던 일들을 일러바쳤다. 슈퍼바이저가 다시 물었다. “주임신부가 그러면 안 되나요?” 나는 담담한 마음에 소리 높여 대답했다. “당연히 안 되죠, 사제단 안에서 선배가 후배한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면...” 슈퍼바이저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또다시 물었다. “주임신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동안 내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 같았던 슈퍼바이저가 못 알아듣겠다는 듯 같은 질문을 계속해대니 답답하다 못해 서운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네, 그래서는!’ 하고 말하려던 순간, 머릿속에 그때 그 환자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 주임신부는 그래도 되는 거구나! 단지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뿐 그는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거야. 하느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려던 환자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상대의 권한을 인정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다시 보였다. 주임신부에게 배려만 요구할 뿐 부주임으로서 무엇 하나 이해하려 하지 않던 나의 옹졸함이 보여 부끄러웠고, 그런 나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을 주임신부의 처지가 짐작되어 되레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다. 나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신마비 중에 당신의 권능을 알아보았던 환자의 말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알아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되묻던 슈퍼바이저의 질문을 통해 당신께 진작 드렸어야 할 고백을 내 입술에 담아주셨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었습니다” (욘 42,3). 🙏



교구 소식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4/27(토) 16시~18시

장소 파주엑소더스(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79-39)

주제 보조성의 원리 (각론) 전쟁의 시대, 평화의 길 - 강주석 신부

신청 및 문의 031-948-8105 (금, 토 휴무) / 1회 참석도 가능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5/5(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4/26(금)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신용복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타악기

일시 5/19(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 (자유곡)

문의 010-8419-0073

의정부교구 ME 제140차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

날짜 4/26(금)~28(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4515-3854 ME 주말분과대표

하느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 시복을 위한 은혜의 밤

일시 4/20(토) 17시

장소 황사영 순교순례지(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70)

1부 - 한국 103위 순교성인, 124위 복자 호칭기도 (초봉헌, 안수)

2부 - 특강 <순교자의 향기>, 이분매 베난시아 수녀

3부 - 미사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제31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5/10(금) 19시 ~12(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미사 · 피정 ▶▶

4월 한마음 어게인 Talk 특 부활 토크콘서트

일시: 4/27(토) 10시 (파견미사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광장
주제: 말씀을 통해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회비: 1인당 4만원 (식대 포함)
신청: 4/21(주일)까지 [선착순 15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일시: 4/17(수) 14시
장소: 교정사목센터 그루터기(의정부시 용현동)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 (전화, 문자 모두 가능)

제22회 젊은이 전국 연합 성령축제

성령 강림 대축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5/19(주일) 10시~17시
장소: DMZ 생태관광지원센터(파주시 임진각)
회비: 1만원 (식사 포함)
문의: 010-9574-6469 의정부성령새신 청년회장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5/14(화) 11시 ~ 15(수) 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회비: 8만원 (사전 접수)
문의: 010-5490-5345 꽃동네기도회

낙태 후 화해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일시: 4/19(금)~21(주일) [회비 없음]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문의: 010-6637-1366 변 바올라수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 원주교구

6/14(금)~16(주일) 강한수 신부 (의정부교구)
7/19(금)~21(주일) 안소근 수녀 (성도미니교선교수녀회)
8/16(금)~18(주일) 조규만 주교 (원주교구)
9/20(금)~22(주일) 남궁민 신부 (원주교구)
문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2024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캠프

일시: 8/5(월)~7(수), 8/7(수)~9(금) 15시
대상: 청소년부(중고등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5/31까지 [선착순 80명], 회비: 23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청주 초정 성령화관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금) 20시 ~ (토) 01:30
장소: 청주 초정성령화관
강사: 두현자 율리안나, 김재중 요셉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https://linktr.ee/epiphania.c>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4/20(토) 10시 풍동 성당
4/20(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부활 피정

일시: 4/27(토)~28(주일) [1박 2일]
장소: 원주 본원 / 회비: 2만원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문의: 010-3679-7198 강 피아 수녀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일시: 4/15(월) 12:30~17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4/19(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마곡수명산 주임)
※ 4/26(금) 전국성령치유대피정으로 휴무

젊은이 봄 피정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날짜: 5/4(토)~6(월) [2박 3일]
장소: 평창 라베르나의 집
문의: 010-5715-1702

가정 회복 은혜의 날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4/15(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2024년 성령새신 전국 치유대피정

일시: 4/27(토) 09시~17:3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양창우 신부, 한연흠 신부, 오웅진 신부
미사: 구요비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문의: 02-777-3211

교육 · 모집 ▶▶

성바오로수도회 레벤복스 복토코

일시: 5/18(토) 14시
장소: 성바오로수도회 미아동 본원
주제: 레벤복스 신간 「행복@로컬」
정석의 하동·목포·전주·강릉 한달살이 이야기
강사: 정석 예로니모 교수
문의: 010-2557-1361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석·박사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접수: 4/22(월)~5/2(목), 전형일: 5/18(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DIOCESE OF UIJEONGBU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4/20(토) 15시	성북동 수도원(서울 성북구 선잠로 9-6)	010-8573-0567
	살레시오회	매월 넷째 토요일 14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20(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5/5(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원	010-8715-2846
	성 마리아 재속회	재속회에 관심 있으신 45세 이하 미혼여성 / 전화 상담		010-9437-5903

2024 봄 배동*제자교육

갈릴래아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소비사회에서 복음적 인생관 찾아 떠나는 2박 3일의 여정
날짜: 5/3(금)~5(주일)

장소: 성령선교수녀회(서울 종로구 창경궁로26길 6)
대상: 20세 이상 천주교 신자 / 회비: 15만원
문의: 02-3144-2144, 010-6750-2144

민들레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모집

근무형태: 전일제1명 (정규직)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곡로 42
모집: 5/31(금)까지 [서류접수 후 면접]
문의: 031-947-9047

www.caritasdaegun.or.kr

※ 자세한 내용은 대건카리타스 홈페이지 참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 입양 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길음동 성당 묘원(울대리) 직원 모집

분야: 묘지 사역 및 현장작업자 1명 (계약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길음동 성당 (성북구 길음로9길 74)
또는 hope9237@seoul.catholic.kr
문의: 02-912-4612

진접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 엑셀, PPT)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접수: 4/28(주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직원 채용

부서: 고객지원팀 영선반(실/내외 작업)
근무: 주5일 근무 (주40시간 08:30~17:3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내용은 hanmaum84.com 참조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뜨락 5기 모임 - 사별 가족 모임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종교 무관) / 회비 없음
기간: 5/14~6/11 매주(화), 13:30~16:30 [5회]
장소: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남양주시 불암산로 99)
문의: 010-8985-9971, 010-9313-9265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5/17(금)~20(월), 5/31(금)~6/3(월),
7/19(금)~22(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6/15(토) 이탈리아 일주 (10일, 490만원)
9/16(월)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 동반자 할인
9/23(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2일)
10/8(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75만원)
12/2(월) 미서부,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성지순례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7/8(월)~19(금) 동부 유럽 5개국 (465만원)
7/12(금)~23(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460만원)
8/26(월)~9/6(금) 튀르키예, 그리스 (47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 피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5/2(목)~4(토), 5/6(월)~8(수),
6/21(금)~23(주일)
추자도 포함: 5/26(주일)~29(수)
제주성지순례: 7/1(월)~3(수)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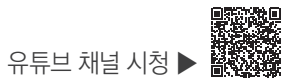
5/7(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DIocese of Uijeongbu

성서

일간성서 <4월호>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말씀으로 무장하라
강사: 정남진 신부 (원주교구,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
일정: 4/4(목), 11(목), 18(목) [총 3회 업로드]



유튜브 채널 시청 ▶

전시

[전시] 하늘정원展

이정옥 개인전(유화)
일시: 4/13(토)~26(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g_pyeongwha (카카오톡채널)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향

주님 부활 대축일처럼 성대한 미사에서는 향을 사용하곤 합니다. 향은 연기를 내면서 타는 일종의 방향성(芳香性) 송진으로서 여러 식물의 수지(樹脂)로 만든 가루나 알갱이입니다. 향을 태워 연기를 피워올리는 분향(焚香)은 전례의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행렬이나 대축일 미사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습니다. 향은 라틴어로 [인첸숨](incensum)이라고 하는데, ‘태우다’라는 의미의 [인첸데레](incendere)에서 유래한 단어로 본래 ‘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분향은 고대 근동의 오랜 관습이었는데, 실상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미 그곳에서 통용되던 전통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시편에는 “저의 기도 당신 면전의 분향으로 여기시고, 저의 손 들어 올리니 저녁 제물로 여겨 주소서.”(141,2)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에서도 분향이 널리 퍼졌고, 자신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느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분향과 그에 비유한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마태 2,11; 루카 1,9-11; 2코린 2,14-16; 에페 5,2). 특히, 요한묵시록의 구절은 분향의 장면을 눈 앞에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 향로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서자,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좌 앞 금 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8,3-4). 그리스도교에서는 분향을 기도의 상징이자,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태워 봉헌하는 사랑의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향을 피워올리는 일이 그리스도교 전례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끝나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이후였습니다. 먼저 장례 예식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4세기 말에는 동방 교회에 전해져 주일 미사 전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에테리아 여행기」 24,10). 미사 중 분향을 하는 건 ① 입당 후, ② 복음 읽기 전, ③ 제대 위 예물 준비 후, ④ 성체와 성혈을 들어 올릴 때입니다. 또한 제의실에서 행렬을 지어 제대를 향해 나아갈 때와 미사 후 퇴장을 할 때, 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대와 십자가와 부활초에 분향하는 건 그 성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대 위 예물에 분향하는 건 봉헌된 제물이 연기처럼 하느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신자들에게도 분향하는데, 이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드러냅니다. 또한 장례 예식에서는 고인의 시신에도 분향하는데, 그가 성령의 궁전으로 봉헌되었음에 대한 공경의 표지입니다(1코린 6,19).

공경과 전구의 상징인 향 연기는 전례에 참여한 모든 신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또한 신자들의 기도를 더욱 높이 고양하는 표지가 됩니다. 장엄한 전례의 풍요로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매 미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전례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는 미사

일 시: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 들을 기억하며 봉헌하는 미사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5월 성시간

일 시: 5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 성소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성소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당공지

■ 하절기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동안 토요일 저녁 5시에 봉헌하던 저녁 미사가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저녁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기간: 4월 6일부터 9월 28일 까지

■ 환영합니다.

청주교구 수곡동성당에서 정봉열 안셀모, 김보경 가타리나, 정지원 미카엘, 정수지 안나 가족이 본당 3구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4월 1일 ~ 4월 7일)

■ 교무금, 주일헌금, 2차헌금

교 무 금	8건	1,590,000원
주 일 헌 금		859,000원

감사헌금

최성윤	10,000원	박준호	200,000원
윤정희	5,000원		

- 복음 말씀 -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나와 한다.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4월 07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윤병수(그레고리오), 석마리아(마리아)	
4월 14일	주송자	오정화(아네스)
	권우석(라파엘), 정윤정(라파엘라)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